장밋빛 공사계획에 현지 주민들 냉담

농어촌공사 "가뭄대비 · 자산천 생태계 보전 · 수변공원 개발"

송강주민들 "농사불편 없고 · 생태계 더 나빠져 · 수변공원 '글쎄' "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갈등

거진읍 냉천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가 송강리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진읍 냉천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지난해 2월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며 9개월 뒤인 11월 19일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총 2백2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둑 높이를 현재 26.5m에서 31.1m로 4.6m를 높이고, 길이도 현재 115m에서 138m로 23m늘려 저수량을 현재 146.4만㎥에서 267만㎥로 약 두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저수량이 늘어나 수몰 우려가 있는 도로 등 25ha를 매입하고, 송강리에서 건봉사를 잇는 1.29㎞의 새 도로를 개설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준공 예정일은 2015년 12월30일이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이 사업을 완료하면 저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해 가뭄에 대비할 수 있으며, 홍수 등 재해 예방과 하류인 자산천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수변공원 개발로 전망테크와 산책로 등을 갖춘 명품저수지로 발전시켜나가고, 화진포 등 고성 북부권의 부족한 관광철 생활용수 공급 및 화진포호수 수량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송강리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설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우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주 목적은 농업용수의 공급인데, 현재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또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해서 둑 높이를 높이면 저수량이 두배로 늘어 홍수 발생시 붕괴위험이 더욱 높아져 오히려 더욱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자산천 생태계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환경을 보호하려면 저수지 자체가 없어져야 하며, 저수량을 두배로 늘리면 그만큼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민들은 또 수변공원 개발로 전망테크와 산책로 등을 갖춘 명품저수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에 대해 현재 이 지역은 농민들과 건봉사 신도들이 가끔 통행하는 지역이며, 산간오지라서 저수지를 구경하려고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함종성 송강리 저수지 둑 높임공사 대책위원장

"매미 때 인명피해…주민들 불안"

"주민들이 다 물에 휩쓸려서 죽은 다음에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강리 저수지 둑 높임공사 대책위원회 함종성 위원장(60세, 사진)은 "지금도 폭우만 오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수지의 둑을 더 높여 담수량을 늘린다고 하니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함 위원장은 "주민들은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장마철에는 밤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상류 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밤을 지새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 위원장과 주민들이 이처럼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1987년 태풍 셀마와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2003년 매미 때는 불안 속에서 떨던 서명화 할머니가 불안에 견디지 못해 한밤중에 집을 나와 높은 곳으로 피신하시다가 그만 급류에 휩싸여 돌아가셨습니다."

함 위원장은 또 "김의석씨는 병환 중에 피신을 못가고 떠내려가는 가옥에 갇혀 밤새 사투를 벌이다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위험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끝내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함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과다한 쌀 생산으로 답을 전으로 전환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물이 부족해 농사를 못짓는 경우도 없는데 왜 둑 높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함 위원장은 또 "둑을 높이면서 새로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송강리~건봉사 도로가 개설된 지 3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광호 기자

"주민이 행복한 지역만들겠다"

본사 사무실 개소식 … 오피니언 필진 · 시민기자 위촉장 전달

고성지역 유일의 지역신문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사무실 개소식 및 오피니언 필진 등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지난 9일 오전 10시30분 간성읍 신안리 소재 본사 사무실에서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현판식, 대표이사 발행인 인사말, 위촉장 전달식, 건배제의,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성신문 임직원들은 이날 사무실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지키는 고성 유일의 지역신문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윤승근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우리는 그동안 진실이 감춰지고 정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봐왔다"며 "고성신문 창간을 통해 정의가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지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고성신문이 올곧은 지역신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고성신문 발전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지난 9일 열린 본지 개소식 및 필진 위촉장 전달식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일용 시민기자, 최금란 칼럼위원, 윤승근 발행인,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김완식 고성군 노인회장, 한성수 객원논설위원, 남숙희 칼럼위원, 장공순 시민기자.

알 림

시민기자 위촉 안내

고성신문 시민기자로 고성군수협 과장으로 재직 중인 장공순씨와 토성면 봉포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태극씨가 추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장공순 시민기자는 강릉상고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입니다. 동아일보 사진동우회원, 명태축제초대전(고성), 반풍경(서울), 강원의 산하 초대전(강원도민일보사 주최), 강원사진가 초대전(동강사진마을).

○…김태극 시민기자는 속초 출신으로 속초고와 대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토성면 봉포리에서 바다풍경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